

CBWF 이슈페이퍼

발행인 | 박혜경 발행일 | 2023. 10. 30. 발행처 | (재)충북여성재단

아프게 낳았지만, 기쁘게 키우는 우리의 작은 이웃 '비혼모·부' 이야기¹⁾

박민정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1. 비혼모·부와 자녀의 현황

1) 비혼모·부 현황

• 전국 비혼모·부 현황

- 전국 비혼모·부는 총 26,652명이고, 이중 비혼모는 20,345명 (76.3%), 비혼부는 6,307명(23.7%)임
- 비혼모의 연령대는 35~44세가 가장 많고, 비혼부의 연령대는 50세 이상이 가장 많음

• 충북 비혼모·부 현황

- 충북 비혼모·부는 총 788명이고, 비혼모는 606명(76.9%), 비혼부는 182명(23.1%)임
- ※ 충북 비혼모·부는 충북 가구주(678,762명) 대비 0.12%이며, 우리나라 비혼모·부의 약 3%가 충북 거주
- 비혼모의 연령대는 35~44세가 가장 많고, 비혼부의 연령대는 45~50세 이상이 가장 많음



1) 코로나19 이후 충북 비혼모·부 실태 및 정책요구 조사(2023). 「주경미」 연구를 요약·재구성함

[표 1] 전국 및 충청북도 비혼모·부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2021		총계		2021		총계
		비혼모	비혼부			비혼모	비혼부	
전국 비혼모·부 현황	계	20,345	6,307	26,652	충청북도 비혼모·부 현황	606	182	788
	20세 미만	176	-	176		-	-	-
	20~24세	1,254	31	1,285		57	-	57
	25~29세	2,394	340	2,734		73	18	91
	30~34세	3,014	566	3,580		90	19	109
	35~39세	4,088	901	4,989		121	22	143
	40~44세	4,230	1,247	5,477		127	32	159
	45~49세	2,969	1,422	4,391		82	46	128
	50세 이상	2,220	1,798	4,018		52	43	95

자료: 통계청, 2022. 인구총조사

2) 비혼모·부 자녀 현황

• 전국 비혼모·부 자녀 현황

- 비혼모·부의 자녀(0~18세)는 총 31,142명이고, 이 중 비혼모의 자녀는 23,899명(76.7%), 비혼부의 자녀는 7,243명(23.3%)임

• 충북 비혼모·부 자녀 현황

- 충북 비혼모·부 자녀(0~18세)는 총 945명이고, 이 중 비혼모의 자녀는 734명(77.7%), 비혼부의 자녀는 211명(22.3%)임

※ 충북 비혼모·부는 충북 가구주(678,762명) 대비 0.12%이며, 우리나라 비혼모·부의 약 3%가 충북 거주

- 자녀 연령대는(0~18세)를 5세 단위로 구분하였을 때 구간별로 유사하게 나타남

[표 2] 전국 및 충청북도 비혼모·부 자녀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2021		총계		2021		총계
		비혼모자녀	비혼부자녀			비혼모자녀	비혼부자녀	
전국 비혼모·부 자녀현황	계	23,899	7,243	31,142	충청북도 비혼모·부 자녀현황	734	211	945
	0~4세	6,664	1,125	7,789		191	28	219
	5~9세	6,594	1,406	8,000		210	51	261
	10~14세	6,420	2,438	8,858		200	66	266
	15~18세	4,221	2,274	6,495		133	66	199

자료: 통계청, 2022. 인구총조사

2. 비혼모 · 부의 어려움과 현행 복지정책 및 서비스

1) 비혼모 · 부의 어려움

• 심리적 어려움

- 원치 않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함에 따라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두려움 및 가족불인정, 아기 아빠의 임신 거부 등으로 거부감, 배신감, 자존감 하락 등을 경험함

• 환경적 어려움

- 임신 상태가 지속되면서 학업중단, 직장생활 중단 등 대인관계의 단절을 경험함
- 부모로서의 준비 부족, 돌봄 자원의 부족 및 좁은 생활 공간, 월세 부담으로 인한 주거 스트레스 등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며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자녀도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됨

※ 비혼부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파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혼외출산 부담을 대부분 여성이 감당하고 있음을 의미함

•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

-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반복으로 스트레스가 커지고, 의료적 접근 부족으로 건강 악화 가능성 있음
- 짧은 경력과 낮은 인적 자본으로 취업 및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나 가정 내 생활 증가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 증대로 생활고 가중 경험하고 있음
- 자녀양육과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자녀와 갈등 증가, 우울과 압박감 등의 정신건강 악화도 경험함

2) 비혼모 · 부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 비혼모 · 부 대상 복지정책과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공공주택특별법」, 「청소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 비혼모·부 자립 지원, 비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 서비스,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취업지원 등

• 충북의 비혼모 · 부 정책과 서비스 현황

- 충청북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 통해 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 비혼모 · 부 대상 서비스 : 비혼모 · 부 충북거점기관인 '새생명지원센터', 청주시가 위·수탁한 한부모지원 모자가족 복지시설인 '청주 해오름 마을', 비영리단체로 출발해 현재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상상날개'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비혼모 · 부의 면접 통한 구체적 상황 분석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충북거주 비혼모·부의 삶의 경험 파악과 정책요구 조사·분석, 코로나19 경험 및 정책요구 분석 추진

1) 임신의 인지

• 임신 인지 후 출산과 낙태의 갈림길에 섰

- 대부분 다수 주변인의 낙태 권유를 경험하였으며, 낙태시기를 놓치는 등의 출산도 있으나, 살인이라는 죄책감과 새생명의 책임감으로 출산함은 ‘스스로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였음을 의미함
- 평소 자녀와 가족 형성을 고려했던 경험과 인식이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혼자 고민을 많이 했다. 상대방은 안 낳으려고 하고. 주변에서 다 말렸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지우면 죄책감이 남을 것 같아서, 잘 기울 자신이 없었지만 살인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사례 3)



“아이 생기면 아이 아빠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도 무조건 낳겠다고 평소 생각했다.” (사례 5)

• 임신 유지 혹은 중단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임신확인증 발급 비용의 부담이 크고 임신 · 출산 관련 충분한 정보제공과 임신 중단을 고민하다 출산하는 경우 산전관리가 미흡하므로 긴급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 특히, 임신 중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공적 의료 접근의 가능성 향상이 필요하며, 윤리적 낙인이나 정보 및 자원 접근에 대한 제약이 문제가 되었음



“주변에 보면 그 돈이 없어서 임신확인증 받으러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초음파만 검사해도 임신확인증을 발급받는데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검사비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10만 원이 없으면 임신부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사례 14)

2) 자녀 출산 및 양육 초기에 직면하는 어려움

• 비동거 아기의 모 · 부에게 무책임함을 느끼고 비난과 학대, 양육비 미지급 경험 다수 발생

- 상대방에 배신감과 무책임함을 느끼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비혼모에게 비난과 욕으로 대치하기도 하며, 정서적 · 신체적 학대 및 심지어 아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함
- 면접자 대부분 비동거 아기 모 · 부로부터 양육비 지급받지 못하고, 승소해도 이행 경험 없음



“결혼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파혼했다. 집에서는 낙태를 권유했다... 임신 4개월이라서 고민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밤에 도망을 갔다...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남자가 책임감이 너무 없었다.” (사례 3)



“... 아기 태어나고 아기가 울고 하니가 아기한테 이렇게 손을 대더라고요. 운다고 때리거나 그래서 멀어졌어요.” (사례 11)



“아이들 아버지에 양육비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승소했지만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사례 6)

• 비혼모 · 부로서 무시를 경험하고 비혼부는 신생아 사각지대 놓임

- 비혼모는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았다’, ‘몸을 함부로 굴려서 임신 · 출산했다’ 등 부정적 인식을 경험함
- 비혼모 · 부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들부터 비혼모 · 부에 대한 이해와 인식교육이 필요함



“요즘은 덜 하다고 하지만 그게 딴 아니거든요... 한부모에 미혼모라고 하면 가장 그래요. 엄마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저 사람들, 미혼모인가 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한부모인데.” (사례 4)

3) 산후조리 지원 공공시설과 지원 필요

• 공공 산후조리원 부재로 산후조리 힘들

- 입소 시설 비혼모는 출산 준비,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 거주 비혼모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한 산후관리 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필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출산하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14)

• 생활시설보다 지역사회 거주 희망

- : [생활시설의 긍정 의견] 생활시설이 넓고 안정적이고 신생아 돌봄을 받을 수 있음
- : [생활시설의 부정 부정] 거주 기간 내 입양정보제공, 종교생활 강요 등
- 생활시설에서의 비혼모에 대한 따뜻한 시선, 입양과 양육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 제공, 자립에 대한 지지 등의 개선 필요



“...시설에서 2차적으로 상처를 더 받거든요. 그 시설이 교회 쪽인데 신앙심을 억지로 엄마들에게 요구해요. 입양 정보를 많이 줬고, 미혼모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다는 정보는 별로 못 받았어요.” (사례 11)



“미혼모가 되고 싶어서 미혼모가 된 게 아니에요. 난 미혼모 지원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막 따지다시피 하고 울고불고 해서 주게 지원을 받았어요... ‘너는 집하고 연락도 안 되고 갈 데도 없고 미혼모니까 미혼모 지원시설에 들어가면 되지’ 이런 식이었어요...” (사례 4)

4) 원가족 및 사회관계

• 원가족 부모의 관계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음

- 면접조사 참여자의 경우 원가족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인식을 갖고 있으며 부모의 별거·이혼·재혼·사별 등으로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친인척 집 등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음
- 늘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등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한 상처나 기억들로 인해 원가족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는 희망과 꿈이 컸음

이른 혼자 생활 및 사회적 지지망 취약



- : 집안 사정으로 객지에서 독립생활을 일찍 시작한 경험이 발견되며, 집안 사정으로 인해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기대하기 보다는 숨기고 혼자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
- : 파트너의 폭력과 학대를 피한 도망, 지인들과의 연락 단절, 낙태 강요 및 이른 출산 등으로 관계 단절을 경험하였고 자녀가 어릴수록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고 지지망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저는 아이 낳고 나서부터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죽었는 줄 알았대요. 연락이 갑자기 끊겨버려서. 근데 저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친해졌던 언니들하고는 연락해도 친구들하고는 아예 연락을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사례 6)



“언니는 낙태를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가족마저 등 돌렸어요... 친구들도 없었어요.” (사례 3)

원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자유로움 경험



- : 면접참자가 중 원가족의 분리로 어려움도 있지만 자유롭다는 의견도 있음
- ① 고부갈등으로부터의 자유와 혼자라 도움을 못받지만 간섭을 받지 않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
- ② 특히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배우자, 원가족, 배우자 가족 등의 갈등을 경험하는 기혼여성들과의 삶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을 경험함



“나는 눈치 보는 것이 없어요. 시댁도 없어요. 아이에게 더 집중해요. 나는 걸림돌이 없는 거죠. 누가 터치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아이한테 조금 더 일관되게 교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례 3)

•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도움 제공자 있음

- 비혼모 · 부가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 또는 기관은 통장아주머니, 어린이집 선생님, 사회복지사, 공동주거지원 원장님 및 함께 생활하는 비혼모들로 나타남
- 지원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비혼모 · 부와 직접접촉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복지종사자의 마인드와 적극 대처가 중요함



“아이 데리고 이혼전엔 알아보러 다니고.. 맨날 엄마도 울고 아기도 울고 했죠. 그런데.. 동장 아주머니가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고..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조사 나오도록 계속 이야기했어요. 덕분에 양육수당 40만 원 나오는 조건부 수급이 되었어요. (사례 1)



“...어린이집 선생님이 우리 아들 행색을 보고 어딘가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그때 사회복지재단과 안면을 두고 조건부 기초생활 수급자를 달게 도와주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 도움을 받았어요.” (사례 11)



• 비혼모 · 부 거점센터에서 비혼부의 초기 고충에 대한 도움 받음

- 비혼모와 달리 비혼부는 법적 ‘부’로 인정받는 친자확인소송을 거쳐야함에 2~6개월의 소송기간과 200만 원 가량의 비용 소요
- 법적 친자확인 전까지 자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부’가 되어도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정보와 육아용품 물려받기, 맘카페 가입 등에서 취약하여 정보와 네트워크의 보완 필요



“난 미혼모나 부가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내 아기니까... (유전자 검사)거쳐서 법원에다가 얘기해서 등록해라 라고 판결문 같은 거 받아서 ...이렇게 복잡한 줄은 몰랐죠. 만약 새생명지원센터를 몰랐으면 답답했을 거고... 거기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례 9)

5) 자녀양육과 교육과정에서 심리 · 사회적 어려움 경험

• 영 · 유아기(만 3세 미만) 자녀 양육의 어려움

- 영 · 유아기의 발달특성과 자녀양육 방법을 모르고 생계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

•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과 교육의 어려움

- 코로나19로 자녀의 안전한 돌봄에서 공백이 생김
 - : 자녀의 안전한 돌봄과 학습지원의 중요한 공간인 학교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으며 돌봄 공백 발생
 - : 코로나19같은 긴급시에는 지역거점형 긴급 돌봄 보육센터 운영 등으로 돌봄공백 해소에 적극적 준비 요구



“초등학교 3학년이면 혼자 있기 약간 애매해요... 아파트에 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겁 나고 걱정이더라고요. 코로나19로 학교가 쉬어도 내가 알아러 나가야 하면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위기상황이죠.” (사례 4)

- **자녀의 학업을 위한 교육의 어려움**

- 일반학원 통합지원 바우처로 사용 시 낙인감을 줄이고 자녀 이동이 안전한 가까운 학원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자녀가 교육급여 지원받는 과정에서 낙인감 경험**

- 저소득층 자녀 교육용 키트 제공에서 낙인찍힘의 발생으로 직접 전달 아닌 택배방식 변경 필요

6) 정부 주거지원의 한계

- **대형시설 보다는 소규모 생활형 주거지원을 선호**

- 독립적 공간에서 주거하기를 희망하며 생활시설 거주로 인한 자녀들의 낙인감을 염려함

- **주택가 공동생활형 주거지원을 통해 독립적 생활과 낙인감에서 자유로움**

- 탈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택단지에서 공동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 선호

- **충청북도의 공공과 민간 주거지원 대상과 방식의 다양함**

- 주거지원 대상이 다름 : 기관별 주거지원 대상이 달라 대상범위의 포괄성과 양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형태 선호
 - 임대주택 부족으로 주거지원 체감 어려움 : 청주는 임대주택이 많은 편이지만 신청자가 많고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닌 형태가 많음

7)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 **면접 참여 비혼모중 높은 비율로 각종 약물을 복용 중이며, 건강이 매우 나쁜 수준임**

- 우울증, 암 수술, 공황장애, 강박증, 자궁수술, 불면증,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사례 많음



“주변에서 정신과를 한 번 가 보라 해서 가니까 공황장애, 우울증에 강박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를 케어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지금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어요.” (사례 4)



“... 마음의 병 때문에 앞에 걸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같아요... 걸으려는 태연한 척하고 있는데 이 속사정은 누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4년 전이니까 30대에 암이 왔어요.” (사례 3)

- **병원비와 자녀 걱정으로 병원 방문 쉽지 않음**

- 병원비 부담과 입원 및 치료 기간에 자녀 돌봄 부재로 병원 방문 못하는 상황



“제가 시설에서 자라다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제외하고 병원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갔는데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병원에 다닌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정말 도들이예요.” (사례 11)

- **비혼모의 나쁜 건강상태가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 끼침**

- 면접 참여 비혼모는 좋지 못한 건강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건강회복 및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건강이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근데 아기 낳고 잠을 제대로 못자고 완전 혼자 케어했거든요... 밥도 못먹고 구내염이 심해.. 그래서 저희 아기가 말도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못 했으니깐. 처방에 없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사례 5)

• 비혼모 · 부간 건강 수준과 인식에서의 차이

- 신체적 · 심리사회적 이유로 비혼모의 건강이 더 열악
 - : 임신, 출산, 양육, 어려운 상황 등의 지속 노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각종 질환으로 나타난 것이라 추정되며 비혼모로서 감당하는 심리 · 경제적 스트레스와 환경적 자원 결여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비혼부도 어려움을 겪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짐
- 비혼모의 우울감에 주의 필요
 - : 엄마 우울은 자녀 우울로 이어져 ‘우울증의 세대 전이’ 우려 높음



“우울증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애 데리고 몇 번이나 나쁜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요.” (사례 2)

- 정신건강 서비스 기획의 확대가 필요
 - : 적극적 상담 기획 제공을 위해 “방문형 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필요

8) 경제적 자립

• 직업과 수입의 불안정함

- 면접 참여자의 대부분은 직업과 수입이 불안정하며 코로나19 이후 근로일의 축소로 소득 발생이 어려워 정부보조금 합산 해도 생활 안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

•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걸림돌

- 나쁜 건강상태가 경제적 자립의 걸림돌이 됨
 - : 자녀 돌봄과 건강상 문제로 인한 정부보조금에 의지하거나 자녀가 어린이집에 가는 5세 전후로 자립 준비 시기에 잠재되었던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립이 좌절됨



“그동안은 휴가 때문에 일을 못 했는데 아이가 5살이 되면 근로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일할 준비를 해야 해요... 그동안 억눌렀던 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검사를 했더니 암이었어요. 일하려고 하던 순간이었는데 좌절했어요.” (사례 3)

- 교육비 부담이 경제적 자립의 걸림돌이 됨
 - : 비혼모가 희망하는 직업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비 부담, 지원 프로그램 부족



“자립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면... 교육비라든지, 아이 돌봄 비용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배우고 싶어도 외부 교육받는 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400만원 정도 들 거란 말이죠.” (사례 12)

-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일하기 어려움

: '비혼모'에 대한 자존감 부족, 부당한 시선이나 부적절한 접근 등에 대한 대처 어려움으로 일을 그만둔 사례 있음



“아들 때문에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디서 뭐 하기가 되게 두려워요.” (사례 6)



“... 면접 보시는 분이 아기는 있는데 남편은 없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업무 처리할 게 있었는데 돌아다니다가 모텔 가자고... 유부남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지 몰라 직장을 그만 두었죠. 여기 센터 와서 엄마들이랑 얘기하면 이런 일 당한 사람 진짜 많아요.” (사례 1)

- 일자리가 없음

: 충북에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서울, 수도권 이주도 생각하고 있어 충북도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노력 필요

9) 비혼모 · 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 비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함

- 비혼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은 없으나 비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상처받은 경험은 다수 발견되어 자녀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올바르게 살도록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 있음



“아무 데나 몸 팔고 와서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례 1, 사례 4, 사례 6)



“남이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위축되어서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민폐 끼치지 말고 뒷말 듣기 싫어서 자신과 애한테 지나치게 엄격해요.” (사례 5)

•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자 노력함

- 외부의 부정적 시선이 아닌 스스로의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 키우는 사람으로 격려하는 사례도 발견됨



“다들 저한테 대단하다 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일 잘한 행동이 힘들어도 아기 키운 거,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 8)

•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서 책임감 있는 부모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 중 하나이며 한부모가족 중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

- 다양한 가족 중 하나로 비혼모·부가족을 소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인식개선 필요



“비혼모는 어렵게 지낸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위해 밝고 용감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불쌍하게 안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례 4)



“제 주변에 혼자서 낚아서 키우려고 결심하던 동생이 있었거든요... 아이 때문에 저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아이 덕분에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좀 더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닦는 거거든요.”
(사례 2)

10) 코로나19시기 비혼모 · 부의 삶의 경험

• 돌봄공백

-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및 부모 또는 자녀의 코로나 감염으로 긴급 돌봄 공백 발생

• 코로나19로 건강 악순화 경험

- 좁은 주거공간 내 장기간 고립 생활에 따른 생활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 커짐



“코로나는 점점 심해지고..식자재 값도 올라가고 식비를 감당할 수 있게 혜택을 주면 좋는데 청주는 그런 게 부족해요.”
(사례 6)

- 코로나 감염 시 본인의 치료에 의한 돌봄 공백과 자녀 돌봄 공백을 동시에 겪어 재난상황에 대한 우려 큼

• 문화활동, 자조모임 중단으로 고립감 증가

- 주거공간 고립으로 우울감 증가에 따라 야외활동, 친구 만남 등의 필요는 증가하지만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증가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초점집단면접** 추진

1) 주거지원

• 비혼부자 복지시설 설치

- 비혼모 · 부는 3:1 비율이지만 충북도내 비혼부자 시설은 없으므로 설치 제안

•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개선

- 복지시설 퇴소 시 무보증이나 보증금 완화제도로 혜택 어려워 자립 지원 개선 필요

• 테마형(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확충

- 주거문제 해결은 비혼모 · 부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서도 해결책 마련 필요하며 비혼모 · 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테마형 사회주택과 매입 임대형 주택 확충 등을 충청북도와 내의 적극 검토 제안

2) 건강지원

• 비혼모 · 부 지원 홍보물 비치 및 관련 직업 종사자 교육

- 병원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 비혼모 · 부와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종사자 시설에 안내 브로슈어 등을 비치하고, 가족 다양성이나 비혼모 · 부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 가정방문형 상담과 치료 서비스

- 우울 전이 가능성이 높아 비혼모·부를 위기가구 또는 한부모가구로 묶어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앞으로 치료 및 상담 편의 등을 고려한 가정방문형태로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 전망

3) 양육 및 교육지원

- 자녀 지원 바우처 통합

-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료 시점 연장

- '우리가족 119'라고 불리는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 졸업 시 중단되어 돌봄 공백 발생
- 지속적인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료시점 연장 혹은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 필요

4)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개선을 위한 돌봄 정책 마련

- 서울시는 <돌봄 SOS센터>로 돌봄 필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도 한시적으로 정책 지원 제공
- 서울시 긴급돌봄체계는 한부모와 맞벌이부부 가정의 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복지제공을 모델로 삼아 충청북도에서도 벤치마킹 필요

5) 버팀목이 되어주는 멘토링 서비스

- 친언니 혹은 엄마처럼 비혼모에 지지와 격려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혼모의 정서지원과 삶의 질 향상 지원
- 자조모임 참여를 기피하고, 외부와의 원활한 교류가 부족하며 정보에 어두운 비혼부에 더욱 효과적

4. 비혼모·부의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1) 비혼모·부를 위한 제도 개선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

- 조례 내 비혼모·부의 명시 통한 지원 대상의 명료성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법적 지위 확보 필요

- 비혼모·부 지원센터 추가 설치 검토

- 충북 전체의 비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이 청주시 소재의 '새생명지원센터' 1개소 뿐임에 따라 이동과 이용 어려움이 커, 추가 센터 설치의 수요와 접근성 검토가 필요함

- 비혼부 양육 신생아에 대한 지원 공백 개선

- 비혼부 대상의 지원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친자확인 소요시간(2~6개월) 내 비혼부 인증 간소화로 '신생아 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



•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파악

- 충북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추진을 통해 우리도민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비혼모·부 서비스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결과에 대한 추후 관리 병행이 필요함

2) 초기지원 강화

• 임신확인증 발급 지원

- 임신확인증 발급 비용(초진 10만원 정도 소요) 부담 해소를 위해 임신 초기부터 출산할 때까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임신확인증 발급 비용 제안
- 비혼모 임신·출산 권리보장 차원에서 충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에 비혼모의 임신확인증 발급을 위한 검사비 무료지원 조항 포함을 검토 제안

• 비혼모·부 지원 정보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기존 정보제공은 서비스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안내되어 자료나 정보 확인에 불편함이 있어 충북의 비혼모·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안내하는 리플렛 제작 제안

• 초기 의료 및 공공 서비스 제공자 교육 강화

- 예비 혹은 초보 비혼모·부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관련자(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를 대상으로 양성 및 보수교육 시 관련 내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비혼모·부의 임신 출산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실태 및 다양한 특성에 대한 교육 필요

• 출산 및 산후조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 출산장려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비혼모·부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사전산후관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필요하며 비혼임신중단자의 경우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이 되도록 조례 제정 제안

3) 비혼모·부 자립지원

• 돌봄과 경제활동 지원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효성 높은 자녀 돌봄 지원시간의 확대로 실질적 자립 지원 검토 필요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여성가족부의 '미혼한부모 초기지원 정책'은 비혼모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및 경제활동 지원은 빠져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비혼모·부 경제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주거와 건강지원

-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의 주거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급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햇빛이 들고 난방이 가능한 아이 키우면서 살만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에 대한 양질 개선 필요
- 가정방문서비스 전면 도입 제안은 비혼모·부의 고립과 우울, 일상적 어려움 해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로 '가정방문서비스' 시범 실시를 제안하며 도·시비 확보를 통한 시범 적용 제안

• **사회적지지와 자녀 성장 지원**

- 자조모임은 심리·정서·사회적 지지를 공유,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하는데 유용하며 비혼부의 자조모임은 없어 비혼모의 자조모임 지원 확대와 비혼부의 사회적 지지망 확보를 위한 멘토링 서비스 제안

•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초·중등학생 자녀의 개인정보보호로 가족상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대한 교육기관 종사의 인식개선 교육 필요
- 낙인방지를 위한 교육급여 물품 우편 배송, 통합바우처로 전환을 통한 바우처 적용 보습학원을 비혼모·부가족 주거지역부터 확대하는 조치 필요

4) 인식개선

-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시 비혼모·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제고 행사나 사업 병행 추진 제안
- '비혼임신', '비혼출산'에 대한 두려움 공감과 도움 제공, 도움받던 존재에서 도움주는 존재로의 변화를 통한 비혼임신·출산의 사회구성원들 간 긍정적인 인식개선 기여

5) 코로나19등 돌봄 위기 대응력 강화

조사 기반의 제도 개발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심각한 취약성 문제, 불평등 강화 예방 등을 위한 비혼모·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맞춤형 제도 및 서비스 개발 필요



보건·심리서비스 및 관계개선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사노동, 독박육아 등으로 심리정서적·양육 스트레스 개선의 보건관리와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및 가족관계 개선의 여가문화 지원



양질의 일자리 연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감소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 직업연계, 직업훈련 정보제공 등의 좋은 일자리 개발 및 연계 필요



안정적 교육 환경 설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지원 및 비혼모·부자 가족 자녀의 학습과 교육실태 조사를 통한 학습 및 교육 공백 발생치 않도록 지원 필요



가족갈등 관리 통한 행복가정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생활하는 시간 증가로 부모-자녀간 갈등이 심화된 경우가 많아 비혼모·부의 스트레스, 자녀의 힘들음 이해하는 교육 및 스트레스 갈등 관리 교육 필요



우리 도에 맞는 우수 제도 적극적 도입 실천

서울의 '돌봄SOS센터'를 벤치마킹한 '충북형 긴급돌봄 서비스' 체계 마련으로 긴급 상황, 장단기 돌봄 필요시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거점형 긴급 돌봄 센터' 운영 필요

